



'경영학 교과서' 잭 웰치
대학 강단에 선다

'경영 귀재' 잭 웰치(71)가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 강의로 인기를 얻고 있다.
16일 AP 통신에 따르면 웰치는 지난 달
메사주 세츠 공과대학(MIT) 부설 슬로인 경영대학원에서 대학 강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잭 웰치와의 대화"라는 제목이 붙은 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영대학생(MBA) 과정 학생은 모두 30명. 이들은 96명의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력서를 받고 에세이 시험을 거쳐 선발된 '우수학생'들로 기업 CEO가 되고 싶어하는 '미래의 경영자'들이다.

매주 한 번씩 90분간 총 8회 진행되는 이 강의의 특징은 접수제가 아니라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판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불륜 들통' 챠시 구단주
10조원 이혼 소송 위기

프리미어리그 챠시의 구단주인 러시아 석유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40)가 불륜 행위로 위자료만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액의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

에 놓였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최대의 일요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는 15일(이하 한국 시간) '아브라모비치가 23세의 러시아 모델 다리아 조코바와 허가를 즐긴 게 들통나니 이리나(39)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리나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 아브라모비치의 자산 가운데 절반인 55억 파운드를 위자료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요한 박사, 올 '순천 시민의 삶' 수상



15일 순천팔마경기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제 12회 순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오른쪽)이 올해 시민의 삶 수상자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 인요한 박사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법무법인 로컴, 독거노인 초청 경로잔치



법무법인 '로컴'(이근우 변호사)이 15일 낮 광주시 남구 사동 모 식당에서 독거노인 100여명을 초청,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로컴은 광주 공원노인복지회관(관장 김형철)과 자매결연을 맺고 노인 후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민병옥씨 4남 양범창군 정병철(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씨 장녀 지윤양=21일(토) 오전 11시 30분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강인식씨 장남 응혁군 김천주(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녀 정선양=21일(토) 낮 12시30분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영동(해남군 문화예술회관장)씨 장남 경남(개인유튜브)군 최철일씨 3녀 경아(SK텔레콤 광주지점)양=21일(토) 낮 12시10분 해남 베르사유웨딩홀 1층.

▲이태교(법무사)씨 장남 영진군 정윤경씨 차녀 옥현양=21일(토) 낮 1시 예술의 전당 3층 아이리스홀.

▲송기주씨 장남 상현군 현충현(유)

법모터스 대표씨 장녀 연숙양=21일(토) 오후 1시30분 무등파크호텔.

▲최기수(담양군 가마골생태공원 소장)씨 차남 윤일군 심상길씨 3녀 선영양=22일(일) 낮 12시30분 단양죽혈예식장 4층.

▲백형관씨 장남 대현(서울 송파구)군 육석진씨 장녀 혁선양=22일(일) 오후 1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향문화관 연리지 예식홀.

▲비아초교(비동회·회장 김익중)월례회=17일(화) 오후 7시 한우촌, 526-2737, 011-604-2900

▲북성중 제 16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 = 26~27일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월광교회 주차장.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

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223-2100

▲최기수(담양군 가마골생태공원 소장)씨 차남 윤일군 심상길씨 3녀 선영양=22일(일) 낮 12시30분 단양죽혈예식장 4층.

▲백형관씨 장남 대현(서울 송파구)군 육석진씨 장녀 혁선양=22일(일) 오후 1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향문화관 연리지 예식홀.

▲비아초교(비동회·회장 김익중)월례회=17일(화) 오후 7시 한우촌, 526-2737, 011-604-2900

▲북성중 제 16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회 = 26~27일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월광교회 주차장.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

▲복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한주)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사당채, 673-4966

▲제 8회 조대부고인의 밤=21일(토) 오후 6시30분 제일오피스텔 스카이웨딩홀 19층 무궁화홀, 284-5666

▲송정중 총동문회=21일(토) 오전 11시 모교(구 송정여중) 대강당, 011-610-0694

▲제 17차 조대부고 총동문 친선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30분 모교운동장, 224-1461

▲제 5회 서강고 총동문가족 체육대회=22일(일) 오후 10시 모교 대운동장, 225-2914, 018-392-1024

▲전남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22일(일) 오전 9시 신창동 모교운동장, 521-5327

▲창평고 졸업 20주년 기념축제=22일(일) 오전 9시 모교 만덕관, 016-604-9922

오드리 헵번 기념우표, 6,300백만원에 팔려

670원짜리 오드리 헵번 기념우표가 6천300만원에 팔렸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스타 오드리 헵번을 기념하는 1.10 마르크(한화 약 670원)

짜리 허리 우표가 최근 한 경매에서 5만3천 유로(한화 약 6천3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우표는 2001년 만들어졌으나

헵번이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넣었다고 유족이 이를 제기하면서 발행되지 못했다.

제작된 1천400만장 중 대부분은

못쓰게 됐고 우체국 보관용으로 따로 모아둔 50여 장이 사라졌다가 이번에 한 장이 나타나 전화 경매에

응한 독일인에게 낙찰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제48회 사시 2차시험

전남대 출신 19명 합격

법무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48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전남대 출신은 최소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 법과대학(학장 정병석)은 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일 현재까지 19명의 합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9.5세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현재 법학부 4년에 재학 중인 윤명화(여·24)씨, 최고령 합격자는 지난 1995년 2월 법학과를 졸업한 김대만(37)씨였다.

특히 지난해 1차에 합격한 후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해 비고적 시험 대비 기간이 짧았던 합격자도 7명이었으며, 재학생도 4명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42.1%인 8명에 달해 최근 사법시험에 불고 있는 여풍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쾌지나 칭칭 나네' 가수 김상국씨 타계

불나비 사랑'을 부른 가수이자 영화 배우 김상국 씨가 15일 밤 10시20분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향년 72세.

부산 출신인 고인은 1965년 자신의 출연작이었던 영화 '불나비'의 주제가 '불나비 사랑'으로 큰 인기를 모은 후 '쾌지나 칭칭 나네' '여기 이 사람들' '멋쟁이 아가씨' '뜻대로 멋대로' '자갈치 찬기' 등의 노래를 발표했다.

출연 영화로는 '워커홀에서 만납시다'(1966), '육군 김일병'(1969), '우리 강산 차차차'(1971), '별난장군 팔도부하'(1973), '어머니'(1976) 등이 있다.

영화배우로서 고인은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격과 배우로 인식됐으며, 가수로서는 서민의 애환이 담긴 노래를 주로 불렀다. 말솜씨와 재치에도

일가견이 있어 각종 쇼프로그램에서 만답과 원맨쇼를 선보였고 SBS 코미드라마 '아버지와 아들'에 남포동·이봉원 등과 부자로 출연하기도 했다.

90년대 중반부터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져갔지만 99년 SBS '출발 모닝 와이드' 여름 특집에 리포터로 출연하며 고향인 부산 기장의 '곰장어'를 소개하는가 하면 2000년 3월 진로소주 '참이슬'의 부산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차정화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가 있다.



지단-유누스 만난다

<을 노벨평화상 수상>

내달 7~8일 방글라 방문

빈민운동 지원 행사 참석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중원 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지네딘 지단(34)이 제3세계 빈민퇴치운동에 헌신해 온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66)를 만난다.

AFP통신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지단이 유누스의 초청으로 다음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방글라데시를 방문, '그라민 나눔 식품공장' 설립 발표행사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빈민들을 위한 무보증 소액창업 대출사업(마이크로 크레딧)을 창안, 빈민퇴치의 성공적 모델로 발전시킨 유누스는 그자 창설한 그라민 은행과 함께 지난 13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라민 나눔 식품공장은 그라민 은행과 프랑스 다국적 식품기업인 나동이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100만 달러를 투입해 방글라데시 북부 도시 보그라에 세울 예정이다.

<지네딘 지단> <무하마드 유누스>

"온갖 고난과 힘든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희열을 맛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느니"

세계 7대륙 최고봉과 지구 3극점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 탐험계의 의미 있는 기록인 이른바 '아드벤처 그랜드슬램'을 세계 최초로 달성한 전문 산악인 허영호(53)씨는 순천 시민들에게 "꽉막힌 세상 삶이에 짓눌려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최근 열린 제 77회 순천사람 아카데미에 참석, 지역민들에게 "설령 이루려는 목표가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가슴에 묻어두자 말라"면서 "목표를 위해 조금씩 다가섰을 때 그 목표가 실현될지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충분히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재미라는 것이다.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한 허씨의 강의 내용 대부분은 산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졌다.

지난 1982년 첫 해외원정으로 마카루봉(해발

8463m) 정상에 선 것을 비롯해 마나슬루(8156m) 무산소 등정, 1994년 남극점 도달에 이어 1995년 북극점을 밟았던 이야기 등 그동안 경험했던 과정 등으로 강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허씨는 "혼자 길을 뚫어 갈 때 눈 때문에 나아가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고, 크레바스에 빠져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힘들수록 목표를 달성한 뒤에 느끼는 뿌듯함도 그만쳤다고 한다. 자신의 산 경험이 꽉막한 세상 삶에 힘들고 지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 허씨의 생각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한계를 극복한 뒤에 느끼는 뿌듯함'. 허씨가 죽음을 감수하고서도 힘든 길을 택하는 이유다.

허씨는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쓸 날이 온다는 생각으로 꿈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2006 영암 군민의상'

김성신 골든싱크 대표